박건택
총신대학 신대원 교수, 역사신학. 이 글은 96년 12월 9일 본회 청년연구모임 96세미나에서 행할 주제강연을 미리 정리한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

1. Reformed Type의 인간상

칼뱅의 모험은 루터의 모험과는 다른 차원을 갖는다. 칼뱅의 모험은 근대문명으로 향하는 모험이다. 칼뱅의 종교개혁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칼뱅의 가장 큰 성공은 그가 제네바에서 후에 근대문명이 될 새로운 개혁파 인간형태를 형성했다는데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합리적 사회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과 관련한다.

1) 정치적 합리주의

1541년부터 시작된 제네바 교회 조직은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룬다. 칼뱅은 새 교회제도를 위해 보다 민주화된 형태를 성경에서 끌어왔다(특히 롬 12장, 고전 12장, 엡 4장). 이것이 곧 교회의 4중 사역 개념으로 지금까지 개혁파(장로교) 교회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541년 교회법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교회 사역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칼뱅이 세운 새 교회는 새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새 질서를 갖는다. 칼뱅에게

있어 종교개혁이란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 혁신을 포함한다. 제네바 개혁자는 교회를 세상에 있는 단순한 제도로 이해하지 않았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밑에서 통제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업장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경건한 성도들의 자발적 조직체가 아니다. 교회는 자체의 법을 갖는다. 그러나 이 법은 로마의 교회법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칼뱅은 이미 법학 공부 시절 시민법에 대해 Alciato의 영향을 받은 바 있다. 교회 질서는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회질서는 신앙고백과는 달리 신자의 양심을 억압할 수 없다. 신앙고백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기본적 교리라면 교회질서는 중요하나 진리 자체는 아니다.

이런 교회 조직을 근간으로 칼뱅은 제네바 공화국의 입법을 마련한다.[1] 칼뱅은 이 세상에 완전한 정치질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쁜 질서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군주제가 새로이 득세하던 시기에 성경에 따라 공화제를 수립했다. 칼뱅은 그의 공화국에 3가지 성격을 부여했다.[2] 첫째, 입헌국가이다. 시민 사회의 근저에는 계약이 있다. 이것은 "우두머리와 지체 사이의 상호 의무"요, "쌍방 협약"이다. 어쩔 수 없이 군주제를 채택하더라도 입헌 군주제이어야 한다(사울의 경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삼상 8:10-18; 10:25). 그것은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용납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이 법규가 백성의 보호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다윗의 경우도 "군주와 신하들의 상호 의무"가 문제였다. 하나님은 이 일의 공증인

1) 장 자크 루소는 그의 〈사회 계약론〉에서 제네바 공화국을 언급하면서 칼뱅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칼뱅을 신학자로만 아는 사람은 그의 천분의 넓이를 잘 모른다. 그가 크게 힘을 보탠 우리 나라 〈제네바〉의 현명한 여러 법령의 편찬은 그의 〈기독교 강요〉 못지 않게 그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조국과 자유에 대한 사랑이 우리들한테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위인의 기억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회 계약론〉, 동서 문화사, 211쪽, 주.19).

2) 에밀 두메르그, *칼뱅 사상의 성격과 구조*, 대한기독교서회, 1995, 109-140쪽 참고.

이 되셨고 그 앞에서 왕들과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를 맹세했다.[1]

두번째 성격은 선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목사가 선거에 의해 선출되듯이, 위정자도 선출되어야 한다. 칼뱅에게 있어서 위정자는 목사처럼 내적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이 목사에게 인간의 선택을 떼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소명이 위정자로 하여금 사람들의 선택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위정자들에 대한 선거가 있어야 한다. 선거(élection)란 칼뱅이 끊임없이 찬사를 보낸 "거룩한 행위"이다: "이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이 자유롭게 그들의 재판관들과 위정자들을 선출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은 특권이요, 탁월한 은사요,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이다". 칼뱅은 그의 설교에서 권력 상속적 군주제(비록 선택적 군주제라 하더라도)를 거부한바 있다. 그의 이상(ideal)은 대표자를 몇 년 기한부로 선출하는 것이었다.

세번째 성격은 질문 형식으로 던져진다: 칼뱅에 따른 국가는 과연 민주적인가? 칼뱅에게 1789년의 정신이 엿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칼뱅은 "자유에 대해 염려치 않는 것은 노새요, 일하는 소며 나귀"로 여겼다.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천한 것들"이라고 썼다. 이 자유로운 가장 바람직한 국가는 "위정자들이 백성의 공동의 목소리에 의해 선출되는 국가이다". 또한 "모든 사람의 공동의 목소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잘 제정된 행정조직을 갖는 국가이다". 이 자유의 숨결과 더불어 당연히 평등의 숨결이 호흡을 같이해야 한다. 제네바에서보다 덜 편파적인 국가는 없었다. 돈 많고 이름난 부르주아나 귀부인들이 하인

1)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이 계약이 통치 계약이지 결코 사회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회란 자연적 성격을 갖는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의 권리를 갖는다. 통치계약은 바로 이 자연적 권리들, 곧 "영원하고 불가침적이며 파괴될 수 없는 권리들"을 선언하고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권리선언은 마땅히 기록되어야 한다. 자연적 권리가 기록되는 것이다. 이것은 통치계약을 인정치 않고 오직 사회계약만을 인정하는 루소와는 반대된다. 왜냐하면 루소에게 있어서 인간의 권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연법이 아니라 사회계약이기 때문이다.

들과 똑같이 감옥에 들어갔고 칼뱅의 친척, 친구들도 그의 적들과 마찬가지로 쇠고랑을 찼다. 사람은 영혼의 차별들(예정과 지성) 외에 다른 차별이 없다. 우리는 칼뱅이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1789년으로 향하는 민주화의 전망을 열어 놓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합리주의

칼뱅에게 독창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경제 윤리와 관련한다.[1] 그에게 있어 돈은 사람들 사이의 섭리적 중재이며, 그들의 공동 노동의 열매이다. 개인의 이익만의 추구는 하나님의 질서와 모든 사회 생활을 파괴한다. 문제는 이자 붙인 돈의 대여 문제이다. 칼뱅은 츠빙글리에게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2] 이는 구약이 신약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 점에서 개혁파는 확실히 구약적이다. 이자 문제에 대한 검토는 칼뱅 이전과 이후의 행동적 차이 속에서 이뤄져야할 것이다. 칼뱅 자신이 고리대금업을 정죄했고 가난한자들에게 대여해 줄 땐 이자 없이 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떤 개신교 신학자들은 카톨릭과 개신교의 입장들이 대등하다고 단언했다. 확실히 양쪽 다 타인의 비참을 이용하는 고리대금업의 도덕적 정죄는 실제로 존속한다. 그러나 칼뱅은, 생활의 필요를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닌, 돈을 빌린 자가, 돈을 빌려준 자처럼, 빌린 돈을 이용하게 하는 생산적 대여를 합법화했다. 화폐는 그 자체로서는 별 것 아니지만, 그것으로 밀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서 생산력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고리대금은 꼭 돈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밀이나 포도주로도 이루어진다.[3] 여기에 문화적 변이가 있다. 종교가 재부의 획득을 신성화해주

1) André Biéler, *La pensée é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 Genève, 1961.

2) 츠빙글리는 1525년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긴 설교를 했다.

3) 칼뱅은 크리소스톰의 구분을 철폐한다. 이 교부는 말하기를, "밀을 빌려주어 세를 받는 자나 집세를 받는 자는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자와 유사하지 않은가? 결코 아니다. 거리가 멀다(absit)." 중요한 것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고리대금이 될 수 있는 양태들이다.

는 순간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1]과 라트란 공의회의 결정사항[2]을 파기하는 것이다. 남은 문제는 몇 %의 이율을 적용하느냐에 있다.[3]

이와 같이 칼뱅의 개혁파 인간상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자본 민주주의(또는 자유 민주주의)가 될 근간을 만들었고 개혁파 교회는 그런 사회를 형성하는데 이론적, 심리적 근거가 되었다. 마르크스 이전까지 근대 유럽의 지도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득세를 설명한다. 심지어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 운동이 격렬하게 치러진 지난 1세기를 회고하더라도 〈자본 민주주의〉는 여전히, 물론 여러 가지의 수정된 모습으로, 견고하게 확산되고 있다.[4]

2. 개혁파 인간상과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는 그의 유명한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에 대해 개신교, 그 중에서도 칼뱅주의(특히 퓨리터니즘)의 영향을 분석했다. 비록 다른 문명도 유럽 중세와 유사한 상업 자본주의를 알았지만, 16세기에 시작해서 17세기에 발전하는 노동의 합리적이고 분명 자유로운 조직화는 서구에서 특수한 것이었다. 이 경제적 합리주의는 합리적 기술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한 어떤 관리 형태를 받을 수 있는 인간 존재의 수용력 때문이었다. 루터가 그 첫발을 디뎠다: 그는 구원개념을 교회 종탑 밖으로 내보냈다. 칼뱅과 칼뱅주의는 루터 종교개혁보다 훨씬 급진적으로 신비주의와 의식주의를 제거했다. 이미 칼뱅이 열어 놓은 전망 속

1) 돈은 돈을 결코 낳지 못한다.
2) 누군가가, 빌려주는 자 측의 노동이나 소비나 위험 없이, 자체로는 (가축이나 밭 같은) 생산적인 것이 아닌 것을 사용하여 이득을 획득하고자 할 때, 그것은 고리대금이다.
3) 하지만 잊어서는 안될 것은 칼뱅 자신이 사람의 법에 속한 이 경제적 자유를 하나님의 법에 따른 공평과 사랑에 종속시키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4) 특히 카톨릭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이 시기이다. 마이클 노박은 1891년 교황 레오 13세에서부터 100년동안 카톨릭의 변화를 〈가톨릭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The Catholic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1993).

에서, 퓨리턴 사회에서는 부자에게 돈을 빌려준다. 이것은 중세에는 생각할 수 없는 행동양식이다. 개신교도, 특히 퓨리턴들이 자본주의의 창조에 공헌한 것은 그들의 혁신, 곧 그들의 혁명적 확립을 통해서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자신의 몸과 능력의 소유주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 가능성을 그에게 주는 것이다). 베버는 여기서 자본주의 정신이 되는 두 가지 것을 발견한다.

첫째로 돈의 축적은 죄가 아니라 의무이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으로 맨 먼저 벤자민 프랭클린을 인용한다.

①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명심하라.[1]

② "신용이 돈"이라는 것을 명심하라.[2]

③ "화폐는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3]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는 돈을 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4]는 말로 요약된다. 이것은 비합리적 전통주의에 대한 경제적 합리주의의 표현으로서, 합리적 자본 사용 및 합리적 노동조직과 관련한다.[5] 이와 같이 세속화된 칼뱅주의가 합리적 계몽주의의 옷

1) 하루의 노동으로 10실링을 벌 수 있는 자가 반나절 동안 산책을 하거나 또는 방안에서 게으르게 보냈다면, 설령 오락을 위해서 불과 6펜스밖에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도 5실링의 돈을 지출한 셈이 된다 - 아니 차라리 포기한 셈이 된다.

2) 어떤 사람이 자기의 돈을 지불 기일이 지난 후까지도 나에게 말겨 둔다면 그는 나에게 이자액만큼 혜택을 준 셈이 된다. 우리가 신용이 높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액수에 달하게 될 것이다.

3) 돈은 돈을 낳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치는 것이다. 5실링을 굴리면 6실링이 되며, 이것을 더 운용하면 7실링 3펜스가 되고 이리하여 결국 백파운드까지도 된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회전에서 나오는 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이익 증대의 속도는 빨라진다. 한 마리의 암퇘지를 도살하는 자는 그놈에게서 낳을 천마리나 되는 돼지를 없애버리는 셈이 된다. 5실링의 돈을 사장시키는 자는 그것으로 만들 수 있었을 기천 파운드의 화폐를 죽여버린(!) 셈이 된다.

4) 노박, "창조 정신".

5)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는 思考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을 입는 것은 타당하다.[1]

둘째로 금욕주의 정신이다. 위에 것이 돈과 관련된 합리주의라면, 이것은 종교(계시)와 관련된 비합리주의이다. 사실 금욕은 행복의 합리주의적 표현이 못된다. 베버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2] 어떻게 가장 비합리적인 종교 개념에서 출발한 프로테스탄티즘(칼뱅주의, 경건주의, 메소티스트, 재세례파)[3]이 철저하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나아갔는가?

① 신앙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요소를 가지면서 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철저한 합리적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4] "종교적 사항은 각 사람이 스스로가 판단할 것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에 있어서는 〈인격〉과 〈윤리〉와의 분열이 없었던 것이다."[5] 여기에 칼뱅주의의 功利적 성격과 직업관의 특수성이 있다.

② 개인의 선택 개념은 사회 활동을 통해서 확증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표지가 선택의 확신이 되었다. 여기서 엄청난 노동의 추진력이 나왔다.[6] 예정 교리는 불안을 조성했다. 만일 선행이나 경건이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없을진대, 구원을 받았는지 정죄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힘(énergie)은 직업 활동에서 고용되려는 경향을 갖으며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되어진다(그리하여 이것이 선택의

1) 칼뱅주의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이신론자인 프랭클린이 나온 것이다.
2)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본말을 이루는 것은 제 2 장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윤리"이다.
3) 경건주의, 메소디스트, 재세례파 등을 개혁파 라인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 Soli Deo gloria는 신앙의 개인주의와 합리적 공동체 의식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구분 내지는 분리"라는 사고는 사회 활동의 비인격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세속 영역의 우상화를 막았다.
5) 예를 들어 산상설교의 윤리가 그들의 사회 생활에서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사회에서 예수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지키며 직업 세계와 사회에서는 합리적 사고의 바탕에서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6) 일례로, 사회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주의(특히 칼뱅주의).

보이는 표시가 됨). 자기의 신앙을 자신의 직업 생활에서 시험해보려는 것은 자신의 은총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처럼 설교들은 부의 소유와 누림에 있어서 나태한 것을 정죄했고 노동을 통한 지상 재물의 추구를 정죄하지 않았다. 부의 위험에 대한 금욕적 고발도 결국 부자가 되어야하는 종교적 의무를 갖게 했고 투자를 장려하는 생활 양태를 낳게 했다. 사치, 호화로움, 과도한 의상, 생활 방식에서 과시하는 태도는 비록 노동과 노력이 그렇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여겨진다. 노동의 목적은 부의 획득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진짜 개신교의 사치가 되는 것은 우위와 탁월함의 추구이다. 칼뱅주의 윤리로 꽉 찬 작가 Jean Schlumberger는 1930년대에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오직 한가지 것만이 중요하다. 그것은 각자의 삶이 한가지 점에서 탁월하고, 자신의 사치(눈부시게 하는 것)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기호나 능력 중 어느 것이든지 하나를 일상적이고 모두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③ 이러한 합리적 생활 이론과 노동에 대한 열성적 태도를 가능케 하는 것은 금욕주의적 훈련이었다. 이 금욕주의는 중세 수도회적 금욕과 대비된다. 세상에서 은둔하여 사는 수도원의 금욕주의는 이제 세속 직업의 영역에서 수행되게 되었다. 양자의 차이는 합리적 조직에 있다기보다는[1] 수도회의 금욕이 일상생활에서 멀어지는데 반해, 칼뱅주의적 금욕은 세속 직업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기독교인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수도사가 되어야 한다."[2]

이러한 금욕이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 베버의 결론 부분이다. 퓨리턴 지도자들의 글에는 심지어 돈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까지도 금욕적이기를 바란다. 휴식도 시간낭비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직 부단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만이 강조된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부자도

1) 베네딕트에서 시작된 중세 수도 생활의 합리적 조직화가 예수회에서 결정적이 되었다면 (여기서 베버는 탁발 수도회를 언급치 않는다), 칼뱅적 세속화된 수도회는 전 인격에 대한 조직적 지배를 통해 강력한 전투적 교회(ecclesia militans)를 형성했다.

2) 세바스티안 프랑크

일해야 한다. 부가 위험한 것은 다만 태만과 죄악적 쾌락에의 유혹 때문일 뿐이며 부의 추구가 후일의 안일한 생애를 위하여 행해질 경우에만 위험시된다.[1] 그러므로 극장, 연극, 예술, 춤, 등 모든 향락적 요소들이 정죄되었다.[2] 이러한 세속적 금욕은 육욕이나 外物에의 집착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소유의 비합리적 사용에 대한 투쟁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 이런 점에서 不正과 탐욕은 절대적 투쟁의 대상이다. 이것은 邪惡이요 배금주의로서, 오직 부자가 됨을 궁극 목적으로 재산을 쌓는 태도이다.

바로 여기에 퓨리터니즘의 딜레마가 있다. 금욕은 "언제나 선을 원하면서도 언제나 악(소유와 그로 인한 유혹)을 행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를 목적으로서 추구함을 최악의 태도라고 배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직업노동의 결과로서의 부의 획득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부단하고 계속적이며 조직적인 세속 직업 노동을 최선의 금욕적 수단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를 중생과 참다운 신앙의 가장 정확 명료한 확증으로서 종교상으로 중시하는 태도야말로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지칭한 저 인생관을 확장시키는 강대한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욕적 강제 저축에 의한 자본 형성은 자본의 조직적 축척으로 이어졌는바, 확실히 청교도적 인생관은 근대적 경제인의 요람을 담당했다. 하지만 중세 수도회가 경험했던 부의 유혹이 청교도들에게도 발생했고 그들도 수도회가 끊임없이 이 문제로 개혁해야했듯이 영적 각성운동을 통해 개혁해야 했다. 어떤 점에서 칼뱅주의를 견지했던 영국 사회에 던진 웨슬레의 설

1)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너희 영혼이나 타인을 해치지 않고도 합법적 방법으로써 다른 방도보다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방도를 신이 계시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를 거절하고 이익이 적은 방도를 취한다면 너희의 소명 목적의 하나는 스스로 방해되고 만다. 너희는 신의 요구에 반하여 신의 관리인이 되기를 거절하는 것이며 신의 선물을 그를 위하여 사용키를 거절하는 것이다. 물론 육욕이나 죄악의 목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신을 위하여 부자가 되도록 노동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R. Baxter).

2) "순전히 심미적 및 유희적인 쾌락만을 위한 문화재의 향락에는 항상 하나의 뚜렷한 한계 - 그것 때문에 아무런 희생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 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3)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기는 후대 자유주의 신학의 공리주의로 옮겨간다.

교는 이를 입증한다.[1] 그의 설교 내용은 금욕적 노동이 부를 축적하게되고 바로 그 미덕이 교회의 영혼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의 설교는 혹 개인들에게 그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있었을지 몰라도, 범세계적으로 집단화되어 가는 거대한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는 미처 예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종교에서 유래된 세속적 금욕주의가 만든 자본주의 정신은, 단지 이윤 창출이 수단에 불과했던 "창시자"의 생각과는 달리, 공리주의의 계몽시대를 거쳐 이제는 이윤 추구가 그 목적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쨌든 종교적 생명이 충일했던 17세기가 공리적 차기 세대에 유산으로 남겨놓은 바는 무엇보다도, 합법적 형식으로 행해지는 한 화폐획득은 선하다고 하는 - 바리새적인 선이라고 확언할 수 있는 - 무서운 양심이었던 것이다."

---

1) "나는 재부가 증가할 때마다 종교의 정수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사물의 본성에 있어서 참된 종교가 재생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종교는 반드시 근면과 검약을 증진시키는 것인데 이들은 재부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재부가 증가함에 따라 오만, 분노, 세상의 모든 잡사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가슴의 종교인 감리교가 비록 지금은 마치 푸른 월계수처럼 번성해 가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이 상태대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감리교인은 어디서나 근면과 검약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재산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그들은 교만, 분노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그리고 삶의 자만을 키우게 되리라. 그 결과 종교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영혼은 급속히 소멸되어 갈 것이다. 순수한 종교의 이런 계속적인 붕괴를 저지할 길은 없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근면하고 검약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재화를 획득하고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저축하라고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부를 증대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재화 획득이 우리를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실은 하나의 길이 있다. 그리고 하늘 아래 이것 이외에는 딴 길이 없다. 즉 할 수 있는 대로 재화를 획득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저축하는 자는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재부를 많이 획득할수록 은총은 더 커지고 따라서 하늘에다 더 많은 보물을 쌓게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2) 시민적 직업윤리가 탄생했다. 기업가는 형식적 공정성을 잃지 않고 도덕 생활에도 결함이 없고 퇴폐적인데 낭비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영리생활을 추진할 수 있고 또 해야 했다.

3) 현세에서 재산분배의 불공평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며 그것으로 그의 은밀한 목적을 추구하신다는 안심할만한 보증을 주었다.

4) 청교도의 금욕적 윤리에서 걸식은 죄악이다.

5) 직업이 소명이듯이 노동의무도 소명이 되었다.

6) "근대적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근대문화 전체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직업관념을 기초로 하는 합리적 생활태도는 기독교 금욕의 정신에서 탄생하였다."

베버의 최종 결론은 자본주의 정신의 변모를 잘 표현하고 있다. "금욕주의는 현세를 개조하여 그 내부에서 전력을 발휘하려 했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현세의 外物이 일찍이 역사상으로 그 유례가 없이 강력한, 필경은 인간이 피하지 못할 위력을 인간에게 발휘하게 되었다. 오늘날 상기한 바와 같은 금욕정신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어쨌든 승리를 거둔 자본주의는 기계적 기초 위에 서게 된 이래로 그 같은 정신적 지주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금욕주의의 행복한 상속자 계몽주의의 장밋빛 정신조차도 오늘날에는 완전히 사장한 듯 직업의무의 사상은 지난날의 종교적 신앙 내용의 망령이 되어 우리들의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3.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교회에 대한 비판

우리는 비판적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버의 이론을 수용한다. 그것이 영예가 됐건 불명예가 됐건, 적어도 개혁파 인간상은 자본 민주주의의 태동 속에 있었다. 역사의 흐름은 이제 베버가 말한 종교 없이 홀로 가는

(아니 그 자체가 하나의 종교인) 자본주의 앞에 우리를 세워 놓는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렇게 도입되었다.[1] 해방 후 우리에게는 자본주의를 일으킬 생활 풍조(ethos)가 없었다. 정치적 합리주의도 경제적 합리주의도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합리성을 주는 윤리적 배경도 없었다. 베버가 서구의 개혁파 인간상으로 그려놓은 장로교와 감리교 지도자들 및 신학자들에게서 이런 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이 강단과 실생활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복음적 내지는 보수적 성향으로 미루어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의 윤리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버가 말한 재세례파적 분리주의 및 경건주의 윤리를 통해서 금욕적 노동과 근면, 재산의 저축 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정신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것도 사실이다.[2] 자유주의의 등장도 계몽주의적 공리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어쨌든 복음 전도에 총력을 기울인 한국 교회는 우파건 좌파건간에 자본주의 정신이 되는 확고한 기초를 주지 못했다. 오히려 베버가 말한 세속적 금욕주의는 종교에서 비롯되지 않고 박정희 정권의 〈가난 퇴치 이데올로기〉에서 왔다. 한국형 자본주의는 70년대 노동자와 농민의 금욕적 노동과 〈잘 살아보려는 의지〉에서 꽃피웠다. 80년대의 권력형 자본주의는 이것을 등에 업고 이루어졌으며, 결국 90년대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3]

한국 교회는 이런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했다. 한국 교회가 개혁파 인간상에 입각하여 이 사회에 자본주의 정신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본주의 정신이 가장 혐오하는 부의 이기적 추구라는 저질 자본주의에 교회가 영향을 받은 것이다.

1) 여기에는 일본식 자본주의와 더불어 미국식 자본주의가 섞여 있다.
2) 예를 들어 감사에 대한 강조는 끊임없는 금욕적 노동과 저축을 낳았고 더욱이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기에 감사할 〈꺼리〉들이 많아져야 했다. 이것은 결국 교인들의 이익과 행복으로 이어졌으나 정작 부자가 된 교회는 그 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합리적 사용에 실패했다.
3) 사상목,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1989, 참고.

현대 자본주의를 대하는 기독교적 태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 정신의 바탕인 합리주의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1] 오늘날 우리는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실행한다. 권력과 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것들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사용하는 자들이 설 수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와 교회 단체들이 먼저 그런 사회 공동체로 자리 매김을 해야 한다. 사실 정치적 경제적 합리주의가 가장 결여된 곳이 교회와 그 산하 단체들이다. 그것은 계시(종교)의 비합리성이 합리주의를 좋지 않게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의 태도는 아니다. 참된 자본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회인이라면 모두 이 대열에 합류해야 하고 또 합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대안이다.

이것은 많은 기독교(여기서는 비기독교인들과의 협력도 가능하다) 단체들이 사회의 감시 기구로서 존재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권력과 돈의 비합리적 운영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일과 관련한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이내 이런 목적으로 세워진 기존 기구들(예를 들어 언론기관)과 흡사해지는 것을 본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시민 단체를 결성하여 정치, 경제의 영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들은 권력과 돈의 영역에서 자신들이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제도들과 50보 100보임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이런 단체들 자체가 바로 초기에는 비합리적 운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회사금과 자체 회비로 운영하면서 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이 결국 힘에 버거워지며, 또한 일단 사회 단체로 자리 매김이 되고나면 기성 단체와 동일하게 되고 만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라. 이를 위해 무엇보다 참여자 자신이 합리주의 정신을 가져야 하고 사회적 합리주의라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수단 역시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합리주의를 낮은 차원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태도가 있다.

1) 이것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주장이 아닌가?

두 번째 태도는 계시의 비합리성을 극도로 강조하는 것이다.[1] 이것이야말로 철저히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된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급진파들에게서 발견되는 태도이다. 개혁파 인간상은 차라리 합리주의를 강조하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쨌든 권력과 돈의 유용성을 지나치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미 개혁파 인간상은 돈과 권력에 저항하는 힘이 크게 약해졌다. 우리의 목적이 자본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대안이 아니다. 이로 인해 대안이 될 그 무엇이 만들어질 수는 있다.[2] 본래 종교상의 금욕적 삶이 자본주의를 잉태할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종교의 어떤 모습이 또다시 어떤 사회와 문화를 잉태시킬지 모른다. 현대 자본주의를 해체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자본주의의 체계가 유지되되, 그 속에서 삶의 다양한 풍조를 가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될지도 모른다.[3] 계시(특별히 신약)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은 실로 어떤 체제(경제적이건 정치적이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권력과 돈을 보는 시각은 합리주의 내지는 공리주의 이상의 것이 된다. 권력과 돈의 합리적 추구에서 오는 근본적 탐욕 정신을 겨냥한다. 권력은 마귀에게서도 오며[4] 돈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대열에 서는 맘몬의 신이 있다. 세상 권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5] 이 두 가지를 선하게 취한다는 것은 혹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태도는 새로 만들어질 사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신약) 계시가 보여주는 그대로의 모습을 현 사회에 투영하는 것이다.

1) 이런 태도에는 미국의 Christian Radicalism운동과 프랑스의 J. Ellul이 있다. 엘륄의 〈자유의 윤리〉 (Ethis of Freedom)는 현대 기술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독 지성이 취해야할 일종의 혁명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2) 그것이 새로운 경제 공동체인가? 그러나 그것은 이내 다시 합리성의 문제로 빠진다.

3)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입장이 아닌가?

4) 눅 4:6; 눅 11:23.

5) 눅 16:13.

4. 결론

이처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독 지성의 역할은 상호 모순적 이중성을 갖는다. 우리는 이성에 기초하는 사회(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교회는 적어도 제도적으로 그런 사회의 모델이어야 한다. 칼뱅의 제네바 교회는 공화제 및 민주제의 초석이 되었다. 우리는 또한 계시에 기초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한다. 권력의 합리주의, 돈의 합리주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진정 자유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은 신약 계시의 사회윤리 속으로의 침투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성의 합리적 태도와 계시의 비합리적 태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는 우리의 숙제이다. 예를 들어 권력을 무시하는 태도, 돈 안 받고 노동할 수 있는 태도 등등은 때로 가장 합리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태도 자체가 비합리적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 문제는 이런 정신 풍토(ethos)가 기독교인들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느냐이다. □

알리는 말씀

연회비는 3만원입니다. 학생회원은 15,000원입니다. 회비에는 본지의 구독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면서 본지의 구독을 계속 원하시면 15,000원의 구독료가 필요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셔서 적절한 회비를 아래 구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학연의 회원들이 힘을 모으는 방법이 됩니다. 가급적 12월, 1월중에 회비 또는 구독료 납부를 완료해 주시면 기학연의 업무에 도움이 더욱 크겠습니다.

국민	037-01-0434-928 (김승욱)
조흥	342-01-121230 (김승욱)
상업	142-07-028352 (김승욱)
주택	419801-93-201509 (김승욱)
우편대체	012401-31-1928258 (기학연)